

대선정국 새해 예산 국회 심의 난항

여야, 대선후보 공약 예산 반영 총력... 22일 처리 과행 불보듯

'신임 대통령 예산' 놓고도 갈등

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 대선 후보의 공약을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다 '신임 대통령 예산'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초 여야는 22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지만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면서 17대 대선에 치러진 2007년과 마찬가지로 대선 이후로 미뤄져야 할 처리를 맞이하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이른바 '박근혜 예산'과 '문재인 예산'의 간극이 워낙 크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가 4·11 총선 당시 제시한 공약 가운데 미반영분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0~5세 양육수당과 0~2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

부가 편성한 것이어서 차기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반영할 여지가 없다"면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새롭게 일할 여건이 되도록 당선인용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342조5000억원)의 1%인 3조원 가량을 신임 대통령 몫으로 떼어놓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신임 대통령 예산이 예산처리의 기본 원칙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이 새로운 예산을 원할 경우 대통령 신분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2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예산 및 입법과제 점검회'에서 "새 후보가 공명되는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예산만큼은 제대로



文캠프 윤여준 국민통합추진위원장 인터뷰

“단일화 협상 길어지면 구태·나뉘먹기 인상”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윤여준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은 11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야권 단일화 협상에 대해 "협상 과정이 길어지면 국민에게 '구태' '나뉘먹기' 인상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단일화 협상과 과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효과를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또 "두 후보가 예상보다 빨리 후보 등록 전 결론 내기로 합의한 것은 뜻밖이었다"며 "때문에 과정과 결과도 뜻밖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는 이어 "단일화 방법론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면 미세한 부분까지 따져야 하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국가 발전이라는 큰 가치보다 자신의 이해를 따질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양측이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 위원장은 문 후보의 호남 지지도가 예상보다 낮은 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을 호남에서 만들었는데 당선 후 호남에 섭섭하게 한 것에 대한 감정이 아직도 남아

호남여론 속단하기 일러 세후보 정치 색신안 미흡

있는데 그것이 문 후보에 이전된 측면이 있고 경선 과정에서 호남에서 지지도가 높은 후보를 빨리 포용하지 못하는데서 원인을 찾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호남은 전략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호남 여론을 속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진단했다.

'이해찬-박지원' 퇴진론에 대해 윤 위원장은 "밖에서 사람들 만나면 안 빼놓고 나오는 이야기"라면서 "문 후보 입장에서선 정당대화·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된 인사를 즉, 정치적 정당성을 가진 사람을 여론이 안 좋다고 나가라고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또 두 사람이 정치적 과오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과거의 상징성이 강한 것이 그런 여론이 나오게 한 것"이라면서 자신은 퇴진론에 대해서는 "본인의 명예가 걸린 것인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노 9인방의 2선 후퇴가 대선 후 임명직 거부 선언과 같은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적 결단은 아주 다 들어주던지 전혀 안 들어주던지 중간 선택을 하면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그런 것보다 요구가 강하다"고 해석했다.

윤 위원장은 '유력 세 후보의 정치혁신에 대한 입장이 비슷하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 "진단이 비슷하니 처방이 비슷하고, 짧은 시간에 색신안을 만들다 보니 제도적 부분에 치우쳐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세 후보의 정치혁신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한국 정치 불신의 해결책으로는 제도뿐 아니라 환경(풍토·문화)과 인물의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제도만 접근해서 미흡한 것"이라며 "한국 정치의 색과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과 사람의 문제를 생각,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힘 보태겠다”

DJ 3남 김홍걸, 文선대위 합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3남인 김홍걸씨가 12일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선대위 합류했다.

김씨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개최된 문 후보의 중앙 선대위 회의에 참석, "돌아가신 어른의 뜻을 따라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맞서 싸우는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대선에 대해 불안해하고 자신감을 잃었던 게 사실이지만 저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 믿었다"며 "승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다짐했다.

김씨는 선대위의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며 조만간 입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후보 측은 김씨의 선대위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오른쪽)씨와 정상용 전 의원이 민주당 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에 합류, 12일 중앙선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합류를 적극 환영했다. 김부겸 공동 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을 받치는 고귀한 가치 중에 김대중 정신이 있다"며 "김대중 정신의 발전적 계승에 힘을 합치기 위해 김씨가 입당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는 홍일, 홍일씨에 이어 홍일씨까지 아들 3명 모두가 정치 입선에 뛰어드는 점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여사는 홍일씨가 정치 참여 뜻을 굽히지 않자 '자기 인생은 자기 결정해야 한다. 결정했다면 잘 하라'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민주화운동을 주도하며 5·18광주민주항쟁동지회 회장을 지낸 정상용 전 국회의원은 이날 문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다.

특검, 靑 압수수색 불발

김윤옥여사 서면 조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의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이 12일 제3의 장소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

와대 측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한편, 특검팀은 영부인 김윤옥 여사를 서면조사하기로 했다. 김 여사는 자신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시형씨가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부지매입 자금 6억원을 대출받은 것과 관련된 참고인 신분이다.

정가라운지

민주 시당, 교수 지지명단 오류 사과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한 영·호남 교수 명단이 일부 잘못됐다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 12일 "실수적인 실수로 중차대한 시기에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거리를 제공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문 후보 지지 선언 교수 명단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못해 지지의사를 밝히지 않은 교수 2~3명이 명단에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당은 "단일화를 앞두고 양 진영 간의 진정한 통합도 중요하다"며 이어 양 측이 참여하는 공동 정책연대 기구 결성 등 협력을 제안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동구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한 주거환경의 개선이 선행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낮아 업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도로나 공원 등 공적 부담을 늘리는 방식의 유인책으로 업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용진 “도심 재개발 업체 참여 유도”

조용진 민주당통합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12일

임형진, ‘동구발전 비전 5’ 제시

임형진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12일 "행복한 동구, 돌아오는 동구를 만들겠다"며 동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임 예비후보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회와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침체한 동구를 되살려 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구 활성화를 위해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친환경적 생태도시 ▲창조적 문화예술 도시 ▲고품질 명품 교육도시 ▲행복한 건강 도시 등 '동구 비전 5'를 제시했다. 북포고와 명지대 법학과를 졸업한 임 예비후보는 광주시의회 2·3대 의원을 지냈다.

한국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델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을 보장)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을 보장)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학 대리

대지, 전, 답, 입야 매매 신속처리
가족묘지, 남골묘, 선산, 농장, 전원주택지
공정용지, 임대용 아파트, 원룸, 상가 다량물건보유

20년 원조 팍 팍
광주, 화순, 담양, 나주, 정선, 전남전지역 토지전문 부동산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하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델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전문전문(사무정왕) 광주 서구 능성동 641-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검색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남평 강변도시를 주목하세요!

투자.. 지금이 기회!!

혁신도시 보다 저렴한 분양가!
광주시 남구와 공동학군!
대단위 아파트단지 분양예정!
관광호텔, 오피스텔 신축!
점포겸용 주택4층, 근생, 상업용지!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이지공인중개사
팝니다..토지,전답,임야등

-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밤나무밭 1만평 P당 3만원
- 광주 신기지구 일반상업지역 대지194P P당390만
- 장성 백암사입구 모델 및 식당(상업용)대800P, 매가18억
- 영광군.읍.자동차정비공장20년간운영.자동차검사장등,매가6억
- 화순 이양면 초방리 임(77,727㎡,23,512평)매가1억
- 광주서구 매월동 자연녹지 및 준공업지역,1천4백P,2천5백P, 2만P등(각종 공장 및 기타사용 가능)
- 광주 동구 수기동 대지590P, 중심상업지역 매가24억
- 화순군 동면 서성리 호수부근 대지 210P 매가1억3천만
- 곡성군 오산면 조양리 매실밭,421P,매가3400만
- 오지동 3층신축상가주택 대11억(용,보5억5천포함)월수6백만
- 장성 남면 2중주거지역, 전200P,창고,공장,주택등,매가1억
- 광산구 우산동 4층원룸 매가6억 월수 6백만.
- 영광군 흥농읍 주유소, 대지460평 매가5억
- 북구 중흥동 원룸3층원룸 매가4억 월수 250만(인집별도)
- 장성군 북하면 백암사입구 주유소,대919㎡, 매가 4억5천만
- 장성군.읍.덕진리 대로변,전답,임야등10,100P, 매가 P당15만
- 광주 오지동 아파트단지지역내 5층상가,대166P,매가17억

구합니다(매수자대기)

- 월광공단지1~3천평 (담양 대전면부근,8M이상도로접)
- 담양, 봉산면부근 공장부지3천평(대형차량진입가능)
- 소나무 좋은 임야 1만평이상(장성,화순,담양,함평,곡성등)
- 광주시내 수익성있는 상가건물3~18억선
- 광주,철단2지구내 병원신축부지 150평~300평
- 개인소유 저수지 3천평이상
- 전남,전북임원 폐교부지 3천평이상
- 도로여건 및 경관좋은임야 1만평이상
- 원룸 신축부지(광산구 산정동 및 신가,하남,철단지구등)

기타물건다량보유-전화상담바랍니다

전화 : 062-268-2834
HP : 010-6460-2834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가 임대
각화동 홈플러스인근
병의원, 사무실 적합

- * 4~5층 각 130평
- * 6층 110평
- 보5천 / 월200만
- * 지하 140평 (임대가 및 조건조정가능)

수익성 부동산매매
랜드피아오피스텔 매매

- * 15평~29평
- 9~12% 높은수익률
- 치평동 근린상가 매매
- * 매가29억~100억대
- 물건다량 보유
- 8%~10% 수익률

010-9731-8949 (치평동랜드피아 O/P1층)

가은 공인중개사
금 구
전남지역
염전 / 양어장 (폐염전 포함)
잡종지 즉시 매입가능

염전 금매

해남 염전 138,600㎡
신안 지도 50,000㎡
매매가 상당후 결정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설분과 연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영천 신분점, 대전용 소분점,전남)